
이러닝을 통한 성인 장애인의 학력인정 방안

Method of Scholarship Recognition for the Adult Disable by e-learning

안성훈
한국교육개발원

Seong-Hun Ahn(shahn@kedi.re.kr)

요약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210만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62%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애인들의 저학력은 경제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하여 이러닝을 통해 성인 장애인들에게 초·중등 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신체의 불편 때문에 컴퓨터의 사용이나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학습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기술들의 표준 마련과 콘텐츠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이러닝 | 학력인정 | 장애인 |

Abstract

There are 2,100,000 disabled peoples in Korea. 62% of them didn't graduate from high school. Because their low scholarship has been negative influence on economic life, We have to prepare a measure for raising their scholarship. Therefore, in this paper I propose a measure that the scholarship of the disable will be raise. That is to establish a Air & Correspondence High School at special school. Also I propose a measure that the disable have access to internet easier than now. That is to make a technology standard and a content for the disable.

■ keyword : | e-learning | Scholarship Recognition | The Disable |

I. 서론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10만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전체 장애인의 62%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설문조사에 의하면 61.3%가 자신을 하류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장애인들은 거동의 불편 때문에 직업을 구하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학력이 낮기 때문에 구직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와 시설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러닝을 통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학의 불편함을 감소시켜 이동이 불편한

재가 장애인들도 학력 취득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의 학력 취득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닝을 통해 초·중등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IT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인의 학력 실태

1.1 초·중등 학력 실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 미만인 인구는 943,452명이며 이중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갖춘 고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198,474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6].

표 1. 학력별 장애인 수

	비율(%)	전국 추정수(명)
미취학	1.7	23,761
무학	21.5	300,507
초등학교	30.1	420,710
중학교	14.2	198,474
고등학교	24.1	336,847
대학(2년제)	1.9	26,556
대학교(4년제)	6.7	93,646
계	100.0	1,397,707

1.2 취학 실태

장애인의 고등학교 취학률이 상당히 낮다. 장애인 취학률을 살펴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34.0%만이 취학하고 있어 전체 인구의 취학률 90.1%에 대조를 이루고 있다[1].

표 2. 각급 학교별 취학률

(단위 :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전체인구	97.7	2.3	91.9	8.1	90.1	9.9
장애인	48.5	41.5	48.5	51.5	34.0	66.0

1.3 중도탈락 실태

장애인의 중도 탈락률이 높다. 중학교 중도탈락자 수는 2001년 19,097명, 2002년 19,842명, 2003년 15,987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2003년의 중도 탈락자 수는

전체 중학교 학생수의 0.9%이며 그 원인은 품행과 부적응이라고 밝히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당시 총 68,875명 재학생 가운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장애인수가 18.6%인 12,810명으로 숫자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전체 학생수의 비율로 보면 장애학생이 비장애 학생에 비해 학교생활 부적응은 2배가량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9].

2. 장애인의 학력 필요성

장애인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낮다.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시각장애인 조사대상자 351명 가운데 60.6%가 중졸 이하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정부에 의한 인권과 평등의 침해를 상당히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고졸이나 대졸보다 높게 나타났고, 가족과 사회에 의한 인권과 침해에 있어서도 고졸이나 대졸보다 높게 나타났다[8].

표 3. 학력에 따른 인권과 평등의 침해 정도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정부에 의한 인권과 평등의 침해	24.79%	13.11%	2.85%
가족에 의한 인권과 평등의 침해	13.96%	7.69%	1.71%
이웃에 의한 인권과 평등의 침해	21.8%	12.5%	2.28%

또한 의식주에 대한 만족도도 고졸이나 대졸보다 훨씬 낮았고, 여가 생활에의 만족도도 낮았다. 사회 참여 활동 정도도 낮았고, 정보접근권 또한 낮았다. 자기개발을 위한 사회 교육의 필요성에도 고졸이 중졸이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통계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다[9].

3. 장애인을 위한 이러닝

3.1 장애인 이러닝의 필요성

김현진(2006)에 의하면 이러닝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우 많은 유의함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이러닝을 통하여 장애인의 학습공간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러닝은 IT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우 어느 곳에서도 학습이 가능하여 학습공간이 확대 될 수 있고, 또한 많은 지역에 있는 장애인이 동시에 많은 강의를 공유할 수 있다. 장애인

의 경우, 특정지역 학습공간에서 학습하기에는 물리적 접근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며, 또한 많은 장애인들은 지역전체에 걸쳐 소수인원으로 산발적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특정지역에 학습의 장을 만드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이러닝을 실시할 경우,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장애인을 하나의 사이버 공간으로 묶을 수 있게 되어 장애인의 학습공간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습자가 배우는 내용이나 배우는 순서를 장애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성인 장애인의 경우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각기 다를 수 있고, 개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학습 순서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평생학습에서 학습자의 주체적인 선택에 의해 자유롭게 학습이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닝을 통하여 장애인은 세계각지의 다양한 기관이나 인체가 축적한 내용을 필요에 따라서 검색 할 수 있는 등 학습자의 주체성을 살릴 수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 교재에서는 교과서 이외에 음성, 정지화면, 동영상상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교재를 제공받을 수 있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 질 수 있다.

셋째, 학습자의 고립화를 해결할 수 있다. 많은 장애인의 경우 고립화에 익숙해져 있고,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닝을 통하여 이메일, 전자게시판, 프로그래밍 언어, 비디오 회의 등 인터넷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며, 학습자들끼리 동료의식을 가지게 되어, 함께 배운다는 의식이 네트워크 상에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그동안 느꼈던 사회의 고립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러닝은 특히 지금까지 학습기회에 참가하기 어려웠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게 되면서 개개인의 요구나 가능성에 맞춘 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은 결국 이들의 학습 성과를 높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3.2 장애인의 정보화 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50.0%는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 48.3%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장애인 PC 보급률이 11%, 인터넷사용률이 6.9% 였던 것 보다 정보격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표 4. 정보통신기기 보유 현황

(단위 : %)

장애유형	컴퓨터	인터넷
지체	53.9	52.2
뇌병변	41.9	41.0
시각	50.9	48.6
청각	41.3	41.0
언어	52.8	50.9
정신지체	50.1	46.7
발달	78.0	78.0
정신	40.1	37.1
신장	58.4	56.4
심장	46.1	44.1
호흡기	37.8	36.5
간	49.0	49.0
안면	66.2	66.2
장루요루	52.3	47.3
간질	56.6	56.6
계	50.0	48.3

또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2004년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61.6%는 보조기가 없어도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장애 상태에 따른 컴퓨터 이용 정도

(단위 : %)

구분	보조기가 있어야만 이용 가능	보조기가 없어도 이용가능 하지만 불편함이 큼	보조기가 없어도 큰 불편 없이 이용 가능	
전체 장애인	19.9	18.5	61.6	
장애유형별	지체	8.6	14.9	76.6
	뇌병변	29.5	21.5	49.1
	시각	41.0	16.9	42.1
	청각/언어	23.8	29.1	47.1
장애등급별	1-2급	36.0	21.4	42.5
	3-4급	14.5	17.8	67.7
	5-6급	8.8	16.2	75.0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을 기준으로 75.6%가

보조기기 없이도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컴퓨터 이용자 중 장애 상태에 따른 컴퓨터 이용 정도 (단위: %)

구분	보조기기가 있어야만 이용 가능	보조기기가 없어도 이용가능 하지만 불편함이 큼	보조기기가 없어도 큰 불편 없이 이용 가능	
전체 장애인	7.1	17.2	75.6	
장애 유형별	지체	4.0	13.9	82.2
	뇌병변	4.2	14.6	81.3
	시각	18.6	20.3	61.0
	청각/언어	9.1	31.8	59.1
장애 등급별	1-2급	13.6	22.9	63.6
	3-4급	5.9	14.7	79.4
	5-6급	2.3	14.3	83.5

4. 장애인 교육 및 이러닝 사례

4.1 미국

미국은 1988년에 PL 100-407에서 장애아동의 교육효과를 위해 공학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며, 1990년에는 이를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보완된 미국 전장애인교육법을 발표하여 장애인 누구나 필요한 경우,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받는데 있어 필요한 공학 기기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도 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14].

4.2 일본

일본의 특수교육에서의 정보교육 방침은 2002년 「정보교육에 관한 지침서」에 근거하여, 장애학생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특수교육에 있어서 컴퓨터 등의 정보기기는 「종합학습시간」에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수교육정보화의 핵심기제중의 하나가 「Assistive Technology」라 할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지원 기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공학을 이용한 교수학습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수교육정보화는 정보기기와 같은 하드웨어적 측면과 이러닝을 통한 교수학습 콘텐츠 활용 및 지도교사의 역량 측면 모두 발전 초기 단계에 놓여 있다[11].

4.3 영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보조공학 및 정보접근 지원은 「만성질환자와 장애인에 관한 법」, 「장애인교육법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법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게 보조공학기기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계획에 맞게 해당 학교와 지역 사회복지과에서 의사소통기기를 해당 장애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다[4].

III. 장애인을 위한 이러닝 학력인정 제도

이러닝을 통해 성인 장애인들에게 초·중등 학력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사이버학교를 설립하는 방안, 둘째, 특수학교에서 통신제 과정을 두는 방안, 셋째,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특수학교에 부설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중 첫 번째 방안은 초기 설립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립 형태보다는 국가나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국·공립형태로 설립될 가능성이 있으나 시설과 교원 확보를 위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첫 번째 방안보다 단기적인 실효성이 높으나 현 특수학교 교원들에게 많은 업무의 부담을 야기하고 이러닝을 위한 콘텐츠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방안은 현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는 이미 이러닝을 통해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을 위한 콘텐츠 확보와 온라인과 병행으로 실시되고 있는 오프라인 수업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다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하여 성인 장애인들에게 학력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법령 개정 방안

특수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초·중등교육법

상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별개의 종류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범위를 고등학교는 물론 특수학교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특수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를 위한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51조 (방송통신고등학교) ①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2. 출석수업을 통한 치료교육 실시 방안

표 8. 방송통신고등학교 출석 수업에 관한 법령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제4조 (수업일수등) ①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실시하되, 그 수업일수는 매학년 220일이상으로 하고, 수업시간은 1일 40분을 기준으로 한다. ②출석수업은 일요일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학교의 장(이하 "설치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날에 실시하되, 그 수업일수는 매학년 20일이상으로 하고, 수업시간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설치학교장은 지역사회의 실정 및 학생의 편의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출석수업을 계절수업·야간수업 또는 시간수업으로 할 수 있다.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는 1년에 20일 이상 출석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이용하여 특수학교에 실시하고 있는 치료교육활동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출석수업을 일요일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로 매학년 20일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석수업 시간에 치료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치료교육활동은 4단위로 편제되어 있어 연간 총 136시간을 이수해야 하나 방송통신고등학교 출석수업은 연간 20일 하루 6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수시간이 부족해지는 문제와 다른 교과활동을 출석수업에서 전혀 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치료교육활동을 위한 출석수업을 별도로 편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현재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는 연간 출석수업을 24일 하루 8시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할 수 있다.

또한 특수학교에서는 일부의 출석수업을 계절수업으

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장애 학생들은 등하교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특수학교에서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따라서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 본교 학생들이 귀가한 기간을 이용해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출석수업을 운영한다면 많은 장애 학생들이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장애인을 위한 이러닝 인프라 구축

장애인들은 신체적인 불편 때문에 이러닝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가급적 장애인들이 쉽게 이러닝에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1. 웹 접근성 확보

많은 장애인이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웹 접근성이 떨어지고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콘텐츠와 보조공학 기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은 웹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웹에서 자유로운 정보검색이 어렵다. 웹에 대한 접근성 높이기 위해서는 웹 접근성의 구성요소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웹 접근성은 콘텐츠(Contents), 웹 브라우저와 미디어 플레이어 및 사용자 도구(User Agent), 보조기술(Assistive Technologies), 사용자(Users), 개발자(Developers), 저작도구(Authoring Tools), 평가도구(Evaluation Tools) 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야만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2.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인프라 구축

장애인 이러닝에 있어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측면에서의 공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장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요구(need)에 대한 지원과 조치가 필수적이다[16]. 장애인의 개인적 요구 즉, 장애로 인한 신체적·기능적 요구들을 지원 및 보상해줄 수 있는 보조공학 서비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13]. 보조공학은 장애를 가진 학습자들에게 '가능하지 않았던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종류 및 정도에 따른 이러닝 지원 방안과 콘텐츠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유형별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시각장애

시각장애인들이 이러닝 참여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학습용 웹 사이트의 대부분은 그래픽 위주로 사이트를 구성하고 있어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를 이용해도 원하는 정보나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둘째, 대부분의 교육용 콘텐츠들이 단방향의 정보전달 형태로 개발되어 있어 개인별 교육이 어렵다. 셋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습 사이트에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고 교육 자료도 단순한 정보 전달이 대부분이므로 학생 혼자 학습하기에는 쉽게 흥미를 잃기 쉽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시각장애학생이 스스로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둘째, 게시판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콘텐츠는 학습단원 또는 단위 시간에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목표에서부터 학습의 전개, 과제와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넷째, 온라인 교육으로 효과적인 내용을 탑재한다. 다섯째,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과제, 평가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2 지체 장애

이동의 불편을 가지고 있는 지체장애인에게 이러닝은 좋은 대안이 되고 있으며, TV나 비디오와는 달리 쌍방향적인 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능동성,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어 교육의 성과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콘텐츠와 이를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학습자 역시 이러닝 환경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이끌 수 있는 능력과 기본적인 정보 인프라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3 정서장애

정서장애 학생들의 위한 이러닝 학습을 위한 이러닝은 학습자의 나이, 동기, 학습 스타일 같은 학습자 특성 등 학습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과 분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제 및 개념 분석, 교수 목표의 구체화가 이루어지고 대체와 교수-학습 형태 선정, 개발 환경 선정, 산출물 설계와 개발, 평가전략의 요소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언제든지 쉽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4 정신지체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해서는 정신연령을 고려한 흥미롭고 차별화 된 정보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쉽고 흥미 유발이 용이한 콘텐츠와 장비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별 또는 수준별 학습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수학습 능력, 흥미, 학생의 생활연령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재구성하여 교육내용 체계를 다지고, 구체적 조작수준에서 차츰 단계를 높여 점차적으로 개인에 따라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VI.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210만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62%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애인들의 저학력은 경제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닝을 통해 성인 장애인들에게 초·중등 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러닝을 통해 학력을 인정해주는 정규 고등학교이다. 따라서 특수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하면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실효성 있게 장애인들에게 이러닝을 통해 학력을 인정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닝은 통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신체의 불편 때문에 컴퓨터의 사용이나 인터

넷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러닝을 통해 학력인정을 하기에 충분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콘텐츠 개발과 웹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닝을 통해 성인 장애인들에게 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방안과 IT 관련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후 본 연구를 기초로 장애인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이러닝 시행 방안이 논의될 것 기대한다.

참고 문헌

[1]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2004.

[2] 김현진, 특수교육정보화, 교육정보화 백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6.

[3] 김현진, 김혜숙, 유주혜, 특수교육 정보화 지수를 활용한 현황 분석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6.

[4] 김현진, 정동영, 한경근, 박순희, 김성애,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6.

[5] 문부과학성, 정보교육의 실천과 학교의 정보화, 문부과학성, 2002.

[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8] 육근해,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9] 육근해, 교육소의계층을 위한 방송통신중학교 설립 방안 -특수교육에서 방송통신중학교의 역할-, 국회세미나 자료집, 2005.

[10] 이경순, 김진희, 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정보화지원방안(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11]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년 장애인정보격차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12]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웹 접근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기법,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13] L. G. Duhaney and D. C. Duyhaney, Assistive technology : Meeting the needs of learners with disabil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structional Media, Vol.27, No.4, pp.393-401, 2000.

[14] K. F. Flippo, K. J. Inge, and J. M. Barcus, Chap. 1 Legislative foundation of assistive technology policy in the United States. Assistive technology. Baltimore, MD: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Inc.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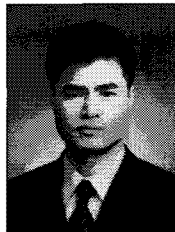
[15] 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mprovement Act. P.L. 108-446. 2004.

[17] J. B. Merbler, A. Hadadian, and J. Ulman, Using assistive technology in the inclusive classroom. Preventing School Failure, Spring99, Vol.43, No.3, pp.113-117, 1999.

저자 소개

안성훈(Seong-Hun Ahn)

종신회원



- 1986년 2월 : 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교육학사)
- 1997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교육학석사)
- 2001년 8월 :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교육학 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관심분야> : 교육용 콘텐츠, e-러닝, 컴퓨터교육